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
보도		배포시 부터 즉시	배포	2016.3.30(수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이 윤 수(02-2156-9810)	담 당 자	이 인 옥 사무관 (02-2156-9811)	
	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 김 연 준(02-2156-9680)		김 정 주 사무관 (02-2156-9682)	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주 환 옥(044-215-2750)		염 철 민 사무관 (044-215-2754)	
	금융감독원 거시금융연구팀장 김 을 진(02-3145-8893)		김 종 혁 선임 (02-3145-8890)	
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팀장 김 성 우(02-3145-8040)		손 경 환 조사역 (02-3145-8042)	
	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변 성 식(02-750-6834)		심 원 과장 (02-750-6844)	

제 목 :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

- 제6차 금융위원회('16.3.30일)에서 **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%로 결정하였음**

1. 진행 경과

- ☐ 바젤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(Counter Cyclical Buffer, CCyB) 도입 결정('10.12월)

* 바젤 III에서 강화된 규제 : 자본보전완충자본, D-SIB 추가자본, 경기대응완충자본

-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·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
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(15.12.16일)

* 자본보전완충자본 : '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.5% 추가적립 의무 발생

* D-SIB : 5개 시스템적 중요 은행(은행지주)을 '15.12.30일 선정

→ '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1.0% 추가적립 의무 발생

2.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내용

- '16.3.30일 제6차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
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%로 결정('16.3.31일부터 효력)

-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총신용 갭 수준,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·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,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

*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공개세미나(2.16, 금융연구원), 거시경제금융회의(기재부·금융위·한은·금감원 부기관장 회의) 등을 거쳐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

[참고]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해외사례('16.3말 현재)

- 바젤회원국(27개)중 23개국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남아공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페루, 아르헨티나, 칠레, 에콰도르, 볼리비아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, 쿠바, 멕시코, 중앙아메리카, 카리브)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, 23개국중 19개국(한국 포함)은 적립수준 0% 결정, 2개국(미국, 영국)은 적립, 2개국(일본, 프랑스)은 미정

3. 향후 계획

- 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은 **당분간 0%를 유지할 예정**
- ☐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**적립이 필요하다고** 판단시, 금융위원회에서 **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·결정할 계획**

참고1

바젤Ⅲ 자본규제 국내도입 일정

◇ '15말 현재 **평균 BIS비율**(은행 13.92%, 은행지주 13.72%)은 '19년까지 충족해야 할 **최저 적립기준**(10.5%, D-SIB의 경우 11.5%)을 **상회**

세부항목		산정방식 및 부과수준	2015	2016	2017	2018	2019~
규제 자본 세분화	보통주 자본	BIS기준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	4.5% 이상	4.5% 이상	4.5% 이상	4.5% 이상	4.5% 이상
	기본 자본	BIS기준기본자본 위험가중자산	6.0% 이상	6.0% 이상	6.0% 이상	6.0% 이상	6.0% 이상
	총자본	BIS기준총자본 위험가중자산	8.0% 이상	8.0% 이상	8.0% 이상	8.0% 이상	8.0% 이상
자본보전 완충자본		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.5%의 완충자본 부과	-	0.625%	1.25%	1.875%	2.5%
D-SIB 추가자본		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.0% 부과	-	0.25%	0.50%	0.75%	1.0%
경기대응 완충자본		0%로 결정('16.3.30)	-	-	-	-	-
총자본비율		D-SIB	-	8.875%	9.75%	10.625%	11.5%
		이외 은행	-	8.625%	9.25%	9.875%	10.5%

* (D-SIB) '15.12월 하나, 신한, KB, 우리, 농협 등 선정 → '16~'19년간 총 1.0% 추가자본

참고2

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관련 해외사례

제도도입 완료(23개국)			제도도입 준비중 (4개국)
0%(19개국)	적립(2개국)	미결정(2개국)	
호주, 벨기에, 브라질, 독일,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, 일본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러시아, 싱가포르, 스페인, 터키, 영국, 미국, 스위스, 프랑스, 사우디, 대한민국	홍콩, 스웨덴	캐나다, 중국	아르헨티나, 인도, 멕시코, 남아공

* 스웨덴 1.0%('16.6월부터 1.5%), 홍콩 0.625%('17년부터 1.25%)